

위대한 메시아의 나라 대한민국

단군 민족의 역사가 숨겨져 온 것은 그저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섭리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는 분명히 구세주 하나님을 탄생시켜야 할 숙명의 역사이기에 수천 년을 숨기고 또 숨겨야만 했던 운명의 역사였다. 이제 신의 역사가 완성되었기에 만천하에 신의 역사를 드러내야 할 때이다.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가 예언한 것처럼 이제 한 민족이 긴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다시 동방의 등불이 켜지고 온 천하는 코리아를 외치며 마음의 고향을 찾아오고 있다. 여기 100년 전 타고르가 외쳤던 그 시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동아일보 | 1929.04.02 기사(뉴스)

족의 시조 '단'이 출생한 후 약 4천 년이 지났다. 그리고 단군왕검이 이 땅에 고조선을 건국하고 3천여 년 만에 구세주인 정도령이 출현하기까지 긴긴 하나님 섭리의 역사이다. 한민족 전통사상인 홍익인간(弘益人間) 재세이화(在世理化) 사상과 인내천(人乃天) 사상은 곧 구세주의 이념이요, 성경이 말하는 인류 구원의 이념과 일치하는 하늘의 법도이다. 단군왕검은 고조선 건국 이후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인내천 사상과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통치이념을 내세워, 인류 최초로 지상천국을 건설하고자 인간 최고의 존엄성을 가르치며, 하늘의 법도를 가르쳐온 위대한 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우리 민족의 뿌리 역사와 위대한 민족성을 알기에, 한민족 전통사상인 홍익인간과 인내천 사상으로 다시 깨어나는 날에 동방의 등불이 되리라고 했다.

단군왕검 이전에 이 땅에 신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무리 3천(실제 수만명)을 이끌고 왔던 하나님의 서자 환웅의 실체는 누구인가? 단군 민족의 정체성을 알고자 한다면 단군왕검을 낳았다는 서자 환웅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결코 단군 민족의 뿌리 역사와 한민족이 왜 천손 직계 민족인가를 알 수 없다.

그들은 어디서 살던 어떤 민족이었기에 미개한 암흑의 시대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가르치며 동방의 빛이 되었는가?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바로 알면 거짓과 우상(偶像)으로 가려진 인류사 6천 년의 비밀이 밝혀진다.

21세기 오늘의 세계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고 물질적으로 개명(開明)한 천지가 되었지만, 인간 자신의 정체성과 우주 만물이 생겨난 근원에 대하여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사에 숨겨진 천손 직계 환웅의 정체성을 밝힘으로써, 인류사 6천 년의 비밀이 풀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왜 그토록 인류가 고대하던 구세주 메시아 생미륵불의 나라인가 하는 의문이 풀린다.*

인서 격암유록과 성경에 담겨 있었다. 그러면 한민족 최고의 예언서로 손꼽히는 격암유록에는 이미 약 5000년 전에 어떠한 예언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천손 민족의 자부심과 다가올 영광에 대하여 마음의 준비를 해보자.

「격암유록 말운가 末運歌」

回來朝鮮 大運數 東西南北 不遑來, 妖鬼敵人 是非障, 錦繡江山 我東方 天下聚氣 運回鮮 (회래조선 대운수 동서남북 불위래, 요귀적인 시비장, 금수강산 아동방 전하취기 운회선)

조선에 큰 운수가 돌아오는데 동서남북으로 거침없이 오게 된다. 요사스런 귀신이나 대적하는 원수라도 이것을 가로막지 못한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 동방 나라 조선에 천하의 기운이 몰려온다.

太古以後 初樂道 始發中原 權花鮮 列邦諸民 父母國 萬乘天子 王之王 (태고 이후 초락도 시발중원 근화선 열방제민 부모국 만승천자 왕지왕)

태고 이후에 처음 있는 즐거운 도가 무궁화 나라 조선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다. 열방의 모든 백성이 왕중 왕이 되는 천자의 나라, 조선을 부모국으로 받들게 된다.

단군의 후손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구세주의 나라가 되는 것은, 성경 창세기 49장 16절에 예언하고 있는 구세주 심판

자 민족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잃어버린 아담 하나님의 다섯째 아들 단지와파의 후예가 바로 단군민족이다. 그리고 이사가 41장 1절 이하에 예언하고 있는 동방의 인이 출현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요, 계시록 2장 7절 이하에 예언하고 있는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생명과 일과 이슬 만나의 주인공 되신 이긴자 구세주가 바로 우리 한민족 가운데서 출현했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에 거론하는 홍익인간 사상은 환인의 서자 환웅이 하늘나라에서 전수해 온 인간 세상 통치이념이다. 그 하늘나라는 결코 공중 하늘이 아니요, 삼신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하던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사상이다. 환인의 서자환웅(庶子桓雄) 역시 성경 속에서 뿌리 역사를 찾을 수 있으니, 곧 아담 하나님의 다섯째 아들 이면서 분처의 장자로 입양한 '단'이다.

아브라함의 증손자 '단'은 이스라엘의 단지와파의 시조이면서 후세 단군조선을 세운 단군왕검의 조상이다. 그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단지와파 무리 3천(실제 수만명 추정)을 이끌고 삼위태백의 동방 땅 끝 땅 모퉁이의 한반도까지 이주하여 신의 나라를 열었다.

성경 이사가 41장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동방 땅 끝 모퉁이 한반도에 구세주가 출현하기까지, 아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권세를 축복받은 단군 민

족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구세주의 나라가 되는 것은, 성경 창세기 49장 16절에 예언하고 있는 구세주 심판

자 민족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잃어버린 아담 하나님의 다섯째 아들 단지와파의 후예가 바로 단군민족이다. 그리고 이사가 41장 1절 이하에 예언하고 있는 동방의 인이 출현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요, 계시록 2장 7절 이하에 예언하고 있는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생명과 일과 이슬 만나의 주인공 되신 이긴자 구세주가 바로 우리 한민족 가운데서 출현했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에 거론하는 홍익인간 사상은 환인의 서자 환웅이 하늘나라에서 전수해 온 인간 세상 통치이념이다. 그 하늘나라는 결코 공중 하늘이 아니요, 삼신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하던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사상이다. 환인의 서자환웅(庶子桓雄) 역시 성경 속에서 뿌리 역사를 찾을 수 있으니, 곧 아담 하나님의 다섯째 아들 이면서 분처의 장자로 입양한 '단'이다.

아브라함의 증손자 '단'은 이스라엘의 단지와파의 시조이면서 후세 단군조선을 세운 단군왕검의 조상이다. 그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단지와파 무리 3천(실제 수만명 추정)을 이끌고 삼위태백의 동방 땅 끝 땅 모퉁이의 한반도까지 이주하여 신의 나라를 열었다.

성경 이사가 41장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동방 땅 끝 모퉁이 한반도에 구세주가 출현하기까지, 아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권세를 축복받은 단군 민

족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구세주의 나라가 되는 것은, 성경 창세기 49장 16절에 예언하고 있는 구세주 심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84>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끝까지 좋아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바로 나라를 것이 하나님께 뉘든지 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이제 승리제단에 나온 후부터는 언제든지 지는 연습을 해야지 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긴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지는 생활을 연습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뉘냐 하면 상대방이 미워할 때에 그 상대방을 미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마귀 입장에서는 지는 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때리고 욕을 해도 그 미워하는 상대자를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끝까지 좋아하고 끝까지 사랑한다면 바로 그것이 마귀는 진 것이요, 하나님은 이긴 것이 되는 것이다.*

이기는 삶

사과는 딱 부러지게 하라

‘제 잘못입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준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한다. 사과는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사과는 다른 어떤 언어로도 대체할 수 없는 마법의 힘을 가졌다. 사과는 모든 희망과 바람, 또 불안함의 가면 벗겨낸다. 사과할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지고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던 가면을 벗고 진실한 얼굴을 하게 된다. 사과는 더 이상 약자나 패자의 빛이 되었던가?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바로 알면 거짓과 우상(偶像)으로 가려진 인류사 6천 년의 비밀이 밝혀진다.

얼마 전 “미안해”라는 사과 한마디가 예상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심리학적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사과를 더 이상 약자나 패자의 빛이 되었던가?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바로 알면 거짓과 우상(偶像)으로 가려진 인류사 6천 년의 비밀이 풀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왜 그토록 인류가 고대하던 구세주 메시아 생미륵불의 나라인가 하는 의문이 풀린다.*

간단한 사과의 말 한마디가 가해자에게 복수하고 싶은 피해자의 마음을 용서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과의 뜻을 전한 가해자는 이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마이애미, 미네소타, UCLA 대학 합동 연구팀은 33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연구팀은 각기 다른 좋지 않게 만든 사람(가해자)이 먼저 다가와 “미안하다”라는 말과 함께 작

은 꽃 선물을 사서 전달하게 했다. 그 결과 사과하려고 상대방을 달래고 회유하는 행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가해자를 향한 불만스러운 인식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피해자는 언쟁 또는 회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여전히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가치를 느끼고 다시 한번 타인과 소통하려는 심리상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는 간단한 사과의 말 한마디가 용서를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은 어렸을 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 상처를 주고받는 배우자나 연인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겸손하게 의견을 말하면 상대는 곧 납득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줄어든다. 그리고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내 옳은 생각에 대해 상대방이 박수를 보내준다. 겸손은 남이 시기해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미리 지뢰를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다.

주역에는 ‘하늘의 도는 자만하는 자를 멸하고 겸허한 자를 이롭게 하며, 땅의 도는 자만한 자를 어지럽히고 겸허한 자에게 순응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탈무드에는 ‘충명한 사람이 자만하는 순간, 지혜는 그 사람을 떠난다’는 내용이 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사과는 딱 부러지게 하라. “제 잘못입니다.” 한 마디가 주는 파장은 용서와 화해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리더로 우뚝 서는 척도가 될 것이다.*

정도령 5대 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완벽하고 조리 있는 설교를 할 수 없어



▲승리회보 제94호 1면 헤드라인 캡처
1987년 9월 5일 제4차 세계 전도 순방길에 오르신 이긴자 조희성님은 첫 도착지 미국 뉴욕에서 한 달 동안 체류하셨다. 그 당시 미국 뉴욕방송국 TKC(The Korean Channel)에서 조희성님은 “성경은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했다”라는 제목으로 2시간 분량에 해당하는 방송녹화를 성공리에 마쳤고, 2시간에 해당하는 방송녹

화분량을 30분씩 4회로 편성하여 1차로 1987년 9월 27일에 TV방영되었고 2차는 10월 4일에 방영되었고 3차는 10월 11일, 4차는 10월 18일에 연재로 방영되었다.

당시 방송국에서 있었던 이긴자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말씀] 여러분들이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신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이제그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염려하면서 살아본 예가 없습니다. 단상에 서면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염려하면서 단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항상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신이 이 사람 입에 말씀을 담아서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설교는 하지만 설교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

《관련 설교를 5면, 6면, 7면, 8면 전격 게재》

— TV방영 총4회 중 최종회분 영문번역 —
국에 가서 미국 뉴욕방송국에 가서 방송할 때, 우리 교도들이 하는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송국에 가서 방송하려고 하는데, 이제 설교를 쓴 기록을 가져오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결 웃으면서 “나는 그러한 설교 대본을 보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냥 단에서 말하기 시작하면 말이 한 시간을 말하려고 하면 한 시간을 말하게 되어 있고 두 시간을 말하려고 하면 두 시간을 말하게 되어 있고 세 시간을 말하려고 하면 세 시간을 말하고 다섯 시간 말하려고 하면 다섯 시간도 말합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품을 하면서 깜짝 놀래요. “유명한 이제 통일교 목사 문선명인데 설교 대본을 써가지고 와서 방송을 했고 또 조용기 목사도 역시 설교 대본을 가지고 와서 그 설교 대본을 읽는 그러한 설교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된 것인지?” 너더러 목사라고 합니다. (2003. 6. 9.)*
— TV방영 총4회 중 첫회분, 2회분, 3회분 영문번역 —
<https://www.victor.or.kr/sub501>에서 승리신문 <제 895호>, <제 897호>, <제 899호>를 클릭하세요. ****